

5) HBsAg 양성군을 신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하면,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3예(50%)였으며 이중 1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동반하였고 Non-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with subendothelial deposit가 2예(33.3%), 그리고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가 1예(16.7%)였다. HBsAg 음성군에서는 Minimal change lesion 9예(31%),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가 5예(17.2%) IgA nephropathy 4예(13.8%), Focal and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3예(10.3%), 그리고 Lupus nephritis, Chronic sclerosis, Diffuse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가 각각 2예(6.9%), Non-proliferative mesangial deposit가 1예(3.4%)였으며 나머지 1예는 조직 검사에 실패하였다.

— 8 —

단백뇨, 신증후군 및 만성신부전에 있어서의 HBV 표식자의 양성율

한양의대 내과

박한철 · 강흥명 · 박찬원

최근에 B형간염 바이러스의 항원 또는 항체가 사구체 신염 환자의 혈청 또는 신 사구체에서 발견되어 이들이 사구체 신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B형간염 또는 보균자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사구체신염의 한 원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그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자들은 1978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한양대학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 또는 외래통원중인 환자중에서 신생검을 실시한 184명과 혈액부석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 297명을 대상으로 하여 radioimmunoassay를 통한 혈청학적 검사상 B형간염 표식자인 HBsAg, Anti-HBc, Anti-HBs 양성율과 신생검에 의한 각종 사구체 신염과의 관계, 그리고 장기간 혈액부석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부석전후의 B형간염 이환율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 신생검 실시환자 184명중 HBV 항원 또는 항체가 양성인자는 131명으로 71.2%였으며 HBV 항원-항체가 모두 음성인 환자는 53명으로 28.8%를 차지하였다. 또한 HBsAg 양성인 환자는 24명으로 13.04%였다.

2) 각 신질환군에 있어서 HBsAg 양성율은 Minimal

change Nephrosis 환자 82명중 6명(7.3%), Membranous Nephropathy 환자 9명중 1명(11.1%), Focal & Sclerotic glomerulonephritis 환자 33명중 6명(18.1%), membranous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9명중 4명(30.7%), 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5명중 4명(26.6%), Diffuse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환자 12명중 1명(8.3%), IgA Nephropathy 환자 20명중 2명(10.0%)이었다.

3) 혈액부석중인 만성신부전증환자 297명중, 부석전 HBsAg 양성인 수는 20명으로 6.7%였으며 부석 시작전 HBsAg 음성에서 HBsAg 양성으로 된 환자는 8명으로 2.6%의 이환율을 보였다.

— 9 —

成人 腎疾患에서의 血清 B型 肝炎 바이러스 抗原 抗體의 陽性率

延世醫大 內科

萬恩均 · 申成泰 · 李好榮

韓大錫 · 鄭錫浩

病 理 科

崔 麟 峻

1971년 Combes 등이 HBsAg 과 관련된 신장 질환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HBsAg 이 신질환의 병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국은 간염의 endemic area 이므로, HBsAg 의 신사구체염의 병인 요인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긴급하다.

이에 연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3년 10월 사이에 신증후군, 만성사구체염, IgA 신장병증으로 진단된 192명 및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된 112명과, 대조군으로서는 신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이학적 소견 및 기능 검사상 정상이었던 2,634명을 대상으로 혈청 HBsAg 과 anti-HBs 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BsAg 양성율은 304명의 신질환 환자에서는 52명(17.1%)으로서, 2,634명의 대조군중 324명(12.3%)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 < 0.01$).

2) Anti-HBs의 양성율은 269명의 신질환 환자에서 94명(34.8%)으로서, 대조군 1,583명중 639명(40.4%)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3) 신생검으로 확인된 신증후군에서는 HBsAg 양성율이 158명중 38예(24.1%), anti-HBs 양성율이 128명